

보도시점 : 2024. 6. 18.(화) 16:00 이후(6. 19.(수) 조간) / 배포 : 2024. 6. 18.(화)

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, 새로운 성장 기회로 민·관이 함께 만든다

- 전기차 배터리 구독, 성능 진단 서비스 등 8대 유망 서비스 모델 제시
- 국토부·산업부·환경부와 업계가 함께 협업하는 「민·관 공동 협의체」 출범

-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댄다.
-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는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된 이후부터 충전, 정비·교체, 탈거·운송, 재제조·재사용·재활용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한다.
 - 아직은 관련 산업이 본격 성장 전이나, 글로벌 전기차 보급 확산과 함께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.
- 우리 전기차·배터리 산업의 높은 경쟁력을 토대로 미래 배터리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민·관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,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,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, 강경성 산업부 제1차관,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공동 주재하는 「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간담회」를 6월 18일 개최*한다.
- * 한국배터리산업협회,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고, 기업들이 직접 자사의 서비스 사업 모델을 소개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사전행사로 열릴 예정
 - 간담회에서는 업계가 직접 선정한 8대 유망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된다.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춰줄 ^구독 서비스와 ^금융 서비스, 배터리를 더 오래·안전하게 쓰도록 돕는 ^성능 진단 서비스, 전기차 배터리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^탄소 크레딧 거래 서비스와 ^전력 거래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.

- 국토·산업·환경 등 3개 부처와 업계가 함께하는 「민·관 공동 협의체」도 공식 출범한다. 이를 통해 정부와 업계는 8대 유망 모델을 포함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.
- 「민·관 공동 협의체」는 업계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상시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다.
 - 또한, 정부와 업계는 동 협의체를 통해,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성능 평가, 운송·보관 등 △공통의 기준 마련, 배터리 교체, 이동형 충전 등 유망 서비스 모델에 대한 △실증사업 추진 등에서도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.
- 국토부 백원국 제2차관은 “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본래 목적인 전기차 동력원으로서의 역할에서 나아가 다양한 서비스 사업으로 외연을 확장할 필요”라고 하며,
- “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차와 배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힘을 합쳐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은정 (044-201-3817)
		담당자	사무관	홍예표 (044-201-3846)
담당 부서 (총괄)	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	책임자	과 장	박재정 (044-203-4260)
		담당자	사무관	이기현 (044-203-4266)
담당 부서	환경부 자원재활용과	책임자	과 장	이정미 (044-201-738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형래 (044-201-7384)

참고1

「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간담회」 개요

1. 개최 배경

-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‘배터리의 생애주기별 서비스(BaaS)*’가 미래 유망 산업으로 부상 →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·관 협력 필요

* Battery as a Service: 배터리 리스 → 충전 → 재사용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서비스

2. 행사 개요

- 일시·장소 : 6.18(화) 16:00,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EC룸(서울)

* 간담회 사전행사로서 「비즈니스 포럼」도 함께 개최(14:00~15:50, 협회 주관)

- 참석 :

- (정부) 산업부(제1차관), 국토부(제2차관), 환경부(차관)
- (민간) LG에너지솔루션, 현대자동차, SK온, 기아자동차, 피엠그로우, 민테크, 티비유, KG모빌리티, 현대글로비스, 현대캐피탈, 포엔, 브이피피랩, 피트인, 이앰피에스, 배터리산업협회, 자동차산업협회

- 세부계획 :

	시 간	주요 내용	비 고
사전 행사	14:00~15:50 (110')	비즈니스 포럼 (개별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발표)	
간담회 참석자 이동 (중회의실 A → EC룸)			
본행사 (간담회)	16:00~16:01 (1')	개회 및 내빈소개	
	16:01~16:07 (6')	인사말씀 (산업부 → 국토부 → 환경부 차관)	
	16:07~16:14 (7')	8대 유망 서비스 모델 소개	
	16:14~16:20 (6')	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위한 ‘민·관 공동 협의체’ 출범식	· 기념 촬영
	16:20~17:00 (40')	참석자 토론	

※ 공개 범위 : 사전행사 및 본행사(협의체 출범식까지)

참고2

업계 선정 **배터리 서비스 8대 유망 비즈니스 모델**

No.	비즈니스 모델	개념
1	전기차 배터리 성능 진단	전기차에 데이터 수집장치를 부착해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배터리 성능 및 잔존수명 등을 평가
2	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배터리 구독 및 교체 서비스	- 전기차 등의 배터리를 리스 형태로 빌려서 사용하고 매월 사용료를 지불 - 리스용 배터리는 필요시 교체해서 사용
3	탄소 크레딧 거래 서비스	-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한 운수 사업장을 대상, 탄소 크레딧 발급 대행 - 자발적 탄소시장 內 탄소 크레딧의 거래를 지원
4	재제조 배터리 진단 및 평가 서비스	재제조 완료 배터리에 대한 성능, 신뢰성 및 안전성 등을 인증
5	이동형 충전 서비스	기동성이 있는 화물 차량에 ESS를 탑재해 구축 아파트, 휴게소 등 충전 사각지대로 이동하며 충전을 지원
6	전력 거래 플랫폼 서비스	전기차 V2G 등 전력 유연성 자원을 활용해 가상발전소(VPP)를 구성하고, 전력시장 거래 등을 대행
7	배터리 회수·운송·보관 등 로지스틱스 서비스	배터리 수요/공급 관련 실시간 Data를 수집/분석해 최적의 운송·보관 등 유통 솔루션을 제공
8	금융 서비스	-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가치를 先공제 하여, 전기차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 - 전기차 배터리 성능 관리를 통해 잔존가치를 높이고, 전기차 리스료에 반영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